

건축가 A. 디슨의 초기작품에 나타난 예술과 공예운동의 특성

황보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Early Architecture of A. Dixon and Art and Craft Quality

A. B. Hwangbo

School of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요약 이 논문은 영국 건축가 A. 디슨의 초기 건축작품에 나타나는 건축적 특징을 파악하고 그의 건축언어로 이해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하여 예술과 공예운동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했다. 디슨은 많은 건축작품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예술과 공예건축의 중요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큰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디슨의 초기작품에 대한 연구가 행해지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디슨이 설계한 버밍엄 길드 홀, 성 앤드류 교회 그리고 성 바실 교회를 대상으로 문헌연구와 현장조사를 거쳐 그의 건축에 나타나는 특징을 규명하고자 했다. 버밍엄 길드 홀 설계로 대표되는 그의 작품은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중시하는 예술과 공예운동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으며, 건물의 조형성은 물론 사용되는 재료와 적용된 기술 모두 건축물이 세워지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따르고자 시도했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차용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 주거지에 세워지는 교회에 절제되고 섬세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소박한 조형미를 통하여 교회건축의 본질을 표현하고자 한 디슨의 노력은 주목받을 가치가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intends to shed a light on the British architect Arthur S. Dixon (1856-1929). He is largely regarded as a pioneer of the English Art and Craft Movement, yet his works are not widely known nor carefully studied. In search of Dixon's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this paper examined three notable buildings that he designed at the turn of the nineteenth century; Birmingham Guildhall, St. Andrews church and St. Basil's Church. These buildings were erected relatively early in his career as an architect, although he never fully immersed into the profession due to his commitment in family business management. His architectural design shows unique qualities of Art and Craft movement in terms of use of material, spatial arrangement, techniques, and craftsmanship while employing Romanesque as most relevant historic style for ecclesiastical purposes.

Keywords : Arthur S. Dixon, Birmingham Guildhall, S. Andrew's Church, S. Basil Church, Art & Craf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영국 건축가 A. 디슨(Arthur S. Dixon, 1856-1929)은 예술과 공예운동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 인물로 국내에는 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의 건축설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은 디슨이 남긴 마

지막 건축 작품이며, 그의 원본 도면에 근거하여 1996년 증축공사가 진행된 바도 있다[1,2]. 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은 일제강점기에 착공되어 1926년 완성된 작품으로 같은 시기 국내에 건축된 외국인 건축가의 작품이 극소수에 머물렀던 점을 고려하면 디슨은 국내에서 특별한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는 건축가이다. 하지만, 그가 설계한 영국 내 건축작품에 대해서는 뚜렷이 알려진 바가 없

이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일부)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Corresponding Author : A. B Hwangbo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el: +82-2-970-6589 email: hwangbo@seoultech.ac.kr

Received December 4, 2018

Revised January 2, 2019

Accepted March 8, 2019

Published March 31, 2019

어 그의 작품에 대한 실증적인 학술자료가 필요한 형편이다. 이 논문은 예술과 공예운동의 선구자로 알려진 그의 초기 건축 작품을 대상으로 그의 건축설계에 나타난 특성을 규정해 보고자 시도했다. 그의 초기작품에 등장하는 공통적이고 일관된 건축언어는 그의 건축을 규정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하도록 하는 동시에 예술과 공예운동의 예술적인 속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근거로 받아들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논문은 서울주교좌성당의 설계를 의뢰받기에 앞서 완공된 초기교회디자인을 살펴봄으로써 서울주교좌성당의 건립과정 및 발전과정의 상호연계성을 추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이 논문은 건축가 A. 디슨이 영국 예술과 공예운동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을 높이 평가하고 그의 건축작품이 1900년을 전후한 시기 어떠한 특성과 변화 및 개선의 과정을 보여주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빈약한 사료의 한계를 인지하고 기초적인 파악을 위해 문헌연구에 더해 현장방문과 확인을 통한 실증적인 방식을 취했다. 디슨의 작품은 여태 알려진 작품의 수가 적고 존속되고 있는 바가 불명확하기에 현 단계에서는 그가 설계한 작품으로 확인이 가능한 초기 건축물 3점을 선정하여 직접 방문하고 해당 작품의 구체적인 건축언어와 공간 및 형태적 특질을 사진과 더불어 기술 및 기록하고, 10여년의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의 추이를 파악하려고 시도했다. 연구대상으로 삼은 건축물 3점은 모두 건축가 디슨의 명성을 쌓는데 기여한 주요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은 영국 예술과 공예운동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지만, 페브스너의 건축가이드(2007)를 비롯한 현존 문헌에서 상세한 자료는 부재한 상태이다[3]. 디슨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부재한 현황을 고려하여 제한된 문헌에 의지하기 보다는 수 차례 현장방문을 통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문헌과 비교하여 실증적인 확인 및 분석작업을 시도했다. 1900년을 전후한 시기 예술과 공예운동의 영향이 건축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그의 건축언어는 당대 예술과 공예운동의 맥락에서 의미있는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본 논문은 실제 건축물의 현황을 통해 디슨이 남긴 건축물의 중요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연구 대상인 건축물 3점은 모두 현재 사용중인 건물

들로 외부인의 방문이 여의치 않은 상태였다. 방문허락을 얻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원래 설계 때와는 달리 변형이 있거나, 아예 현저히 다른 용도로 건물이 사용되어 본 모습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었다. 디슨의 독특한 건축언어를 규정하고 예술과 공예운동의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논문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었지만, 해당 건축물의 보존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2. 본론

2.1 건축가 A. 디슨 (Arthur S. Dixon)

개항기와 일제강점기 국내에 세워진 서양건축가에 의한 작품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측면에서 디슨의 건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구를 통하여 근대초기 국내 서양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건축가 디슨의 작품과 예술적 경향 등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를 정리하면, A. 디슨은 영국 예술과 공예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그가 설계한 버밍엄 길드 홀(Guild Hall, 1897-8)은 단순하고 절제된 외양에 섬세한 디자인 감각을 덧댄 당대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그가 직접 제작한 금속공예품 또한 예술과 공예운동의 명작품으로 런던 빅토리아&앨버트 (V&A)박물관 등 주요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영국왕립건축가협회(RIBA)의 명예회원(Fellow)이면서 버밍엄지부의 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지만, 그의 건축교육 및 여타의 작품세계는 깊이 탐구된 바 없다[4,5].

2.2 예술과 공예운동의 전개

영국 서부지역과 대도시 버밍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제1세대 예술과 공예운동 건축가들 중에서 A. 디슨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6]. 디슨은 성공한 사업가인 동시에 윌리엄 모리스(W.Morris)와, 찰스 애쉬비(C.Ashbee) 그리고 윌리엄 레더비(W.Lethaby) 등 런던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과 공예 운동에 관련된 인물들과 친분을 가지고 교류했으며, 근대산업과 예술의 생산적 요소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6]. 예술과 공예운동은 윌리엄 모리스를 주축으로 하는 사회운동의 하나로 장식예술 분야에서 촉발되어 건축으

로 확산되었다. 예술과 공예운동은 본질적으로 예술가(artist)와 장인(craftsman)의 구분을 타파하고 공장생산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며 고건축물 보존운동(SPAB)을 전개하는 등 많은 유의미한 시도를 통해 근대 사회의 비전을 제시했지만, 궁극적으로 산업자본주의 생산체계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술과 공예운동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고려한 디슨은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태도를 가지는 동시에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절제되고 소박한 건축을 시도했다. 디슨의 건축에 흔히 붉은 벽돌이 사용되는 것은 그가 거주했던 옥스퍼드와 버밍엄 부근 지역에 풍부한 모래와 자갈 등의 활용이 항상 우선시된 결과이며, 형태적으로는 17세기 이후 런던 서북부 지역 건축에 흔히 사용된 소박한 형태의 박공지붕과 벽체 안쪽으로 밀려들어간 창호 틀과 아치 등이 자주 사용되었다. 디슨의 절제된 벽돌조 구조는 예술과 공예운동 건축가로 잘 알려진 윌리엄 레더비와의 교류를 거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레더비는 윌리엄 모리스의 자택 ‘붉은 집’(Red House)를 설계한 필립 웹(P. Webb)에 영향을 받은 인물로 허스트 주택(Hurst House, 1893)을 설계하여 버밍엄 지역 젊은 건축가들의 관심을 받았다. 디슨의 교회설계에 나타난 특징 또한 레더비와의 교류를 통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3. 디슨의 건축작품

디슨은 진중한 성격에 섬세하고 품격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많은 작품을 남긴 않았음에 불구하고, 1897년 버밍엄 길드의 창립과 길드홀 건축설계를 통해 건축적 역량이 크게 알려지게 되었다[7]. 이후, 1910년경에 연속적으로 설계한 두 채의 교회는 작은 규모에 불구하고 종교적 신념과 더불어 절제된 건축적 표현과 사회통합이라는 예술과 공예운동의 시대적 가치를 잘 드러낸 작품들이다. 이 두 채의 교회는 버밍엄 시내 노동자층이 대거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세련되고 화려한 교회의 외관보다는 절제되고 소박하되 주민들에게 교회가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 것으로 이해된다.



Fig. 1. Birmingham Guild Hall (Photo, 2018)

3.1 버밍엄 길드 (Birmingham Guild, 1897-8)

신흥도시 버밍엄은 영국 빅토리아 시대 말기 급격한 공업화의 결과로 도시가 급성장하고 대규모의 인구가 유입되는 등 상당히 큰 변화를 겪었다. 버밍엄은 1905년 독립된 성공회교구가 설치되었으며, 영국 성공회 신앙을 깊이 가졌던 디슨의 삶은 도시 근로자의 삶을 개선하려는 예술과 공예운동의 인본주의적인 발상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버밍엄 길드 홀은 사무실과 작업실 몇 개를 수용하는 간단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의도된 건물이다. 하지만, 이 건물은 경사진 대로변 교차로에 위치해서 외관의 연출은 물론 진출입과 실내공간의 유기적 배치가 여의치 않은 어려운 작품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슨은 우선 건물의 매스를 치장 벽돌조로 간단히 구성하고 외관의 형태는 17세기 이후 정착되어 일반화된 박공형식의 지붕으로 처리했다. 창호는 3층 건물의 각 층마다 크기와 갯수를 다르게 설정하여 위계감을 부여했다. 개별 창은 사각형의 창틀이 벽돌벽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도록 한 뒤 반원형 아치를 틀어 올렸으며 제일 위에 원형창을 설치해 두어 페디먼트(pediment) 부분의 단조로움을 피했다(Fig.1). 이 건물은 작은 규모의 단조로운 프로그램에 불구하고 건물전체가 뿔어내는 균형잡힌 존재감과 섬세한 디테일 그리고 형태와 재료의 절제된 사용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Fig. 2의 좌측상단에 제시된 평면도는 건물내 사무실과 워크숍 공간 등이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고, 외관은 내부공간 조직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어 이 작품은 예술과 공예운동을 대표하는 걸작으로 평가할 수 있다[8] (Fig.2). 디

슨은 버밍엄 길드 건물의 설계에 그치지 않고 길드 내에서 금속 공예작품의 제작에도 참여하여 상당히 매력적인 작품들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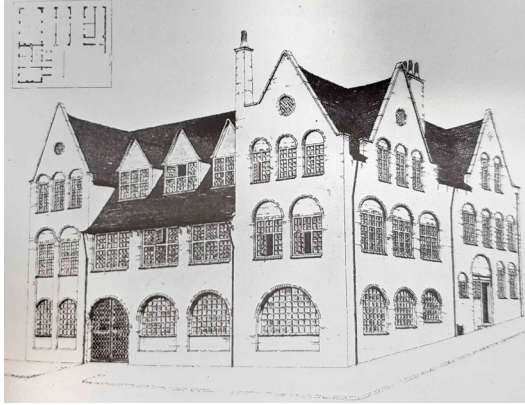


Fig. 2. Birmingham Guild Hall (Drawing, cir. 1897)

3.2 성 배질 교회 (St. Basil, 1910-11)

스몰 히스(Small Heath) 지역에 위치한 이 교회는 규모가 작은 아담한 외관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초기기독교 교회가 지녔던 바실리카 교회공간의 기본적인 원칙을 따르고 있다. 적색과 푸른빛을 지닌 검정 벽돌로 건물전체를 구성했으며, 디테일 곳곳은 점토로 된 타일과 벽돌 치장 쌓기로 소박한 동시에 높은 완성도를 보여준다. 교회정면(서편)과 제단방향으로 모두 반원형의 앱을 지니고 있고, 채색 조각된 목재 스크린으로 제단영역을 구분했다.



Fig. 3. St. Basil (1910-11, Photo, 2018)



Fig. 4. Apse at St. Basil (1910-11, Photo, 2018)

대리석으로 치장된 앱스 벽체 위로는 채색 모자이크로 된 제단화가 반원형 볼트(vault)에 설치되어 있다. (Fig.3 & Fig.4) 실내는 대리석으로 제작된 원형의 기둥이 6개씩 짝을 지어 5개의 베이(bay)공간을 이루고 있으며, 기둥위 주두(capital)에는 성 배질(바실리우스, CE 329-379)의 일대를 기록한 조각이 새겨져 있다. 이 교회가 지닌 절제의 미학 덕분에 포스터(2007:185)는 이 건축물을 원시주의(Primitivism)가 묻어나 있는 교회라고 평가하기도 했다[3]. 성 배질 성당의 모자이크 제단화는 덕슨의 아들 험프리 덕슨(Humphrey Dixon)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뢰할만한 사료는 아직 발견된 바 없다.

이 교회는 1980년대에 들어서 본연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사회복지시설 사무실로 용도가 바뀌었으며, 최근 지역의 저소득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쉼터)이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용도가 여러 번 전환된 관계로 내 외부 모두 많은 변형이 이루어졌음을 쉽게 알 수 있다. (Fig.5)



Fig. 5. St. Basil Column Detail, 2018)

3.3. 성 앤드류 교회 St. Andrew's, 1909-10)

성 앤드류 교회는 성 배질 교회와 거의 같은 시기에

설계를 의뢰받은 것으로 제단부에는 앵스가 설치되어 있고 성 배질교회와 마찬가지로 5개의 베이를 가지는 바실리카 형식의 교회이다. 처음 규모를 줄여 낙성식을 한 뒤 추후 증축을 거쳐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다. 현관 부분에 설치된 반원형의 입구는 디슨의 디자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최근 설치된 것인데 원래 디자인에는 진입부의 앵스가 없다.



Fig. 6. St. Andrews Church (1909-10, Photo, 2018)

제단의 앵스 부분은 바깥쪽에 버트리스가 설치되어 있고 타일이 올려져 있지만 창호는 두지 않았다. 교회부지는 경사면에 위치해서 바깥쪽 진입부와 제단부의 레벨이 다르지만 크립트(crypt)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Fig.6)



Fig. 7. St. Andrews Church Interior (Photo, 2018)

성 앤드류 교회는 전반적으로 초기기독교 교회가 지

넛던 절제된 소박함을 재료의 사용과 실내·외의 구성을 통하여 적극 드러내려 한 것을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다. 트러스형태로 된 지붕 구조물 위로 돌출 창을 두었고 아일 양측에는 한 쌍의 클리어스토리를 다섯 베이 모두에 설치해 실내 밝기를 고려했다.(Fig.7)



Fig. 8. St. Andrews Church Detail (Photo, 2018)

외벽 기둥은 모두 장식이 결여된 채 벽돌조의 치장마저도 억제된 상태로 가장 단순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벽돌의 색감이 붉은색과 진한 남색 그리고 연한 적갈색 등으로 위치별·의도적인 차이를 두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실내의 구성에 있어서도 일절 장식적이 되지 않은 기둥위로 단순한 아치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이런 단순한 구성과 장식의 결여는 클리어스토리의 스테인드 글래스 창 의 역할을 강조하여 존재감을 더욱 강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Fig.8)

성 앤드류 교회는 노동자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건축되었기에 소박한 지역의 특성상 비용절감을 적극 도모했지만, 완성도 또한 대단히 높다. 실내 벽체는 별다른 장식이나 채색 없이 흰색 플라스터만으로 마감되어 있어 제단의 모자이크가 오히려 크게 돋보이는 효과가 있다.

성 앤드류 교회는 1909년 최초 준공 이후 추가로 아일(aisle)과 현관(narthex)공사가 시행되었는데, 추가공사의 이유는 공사비 조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제단의 미려한 목재 채색스크린은 1915년 추가 설치된 것으로 섬세한 글자체와 색채 그리고 목공예 디테일이 돋보인다. 디슨을 비롯한 레더비와 애쉬비 등의 건축작품에서는 건축가의 설계와 장인의 솜씨가 잘 융합된 예술과 공예운동의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Table 1. List of Dixon's Early Architectural Works

Buildings	Dates	Location
Birmingham Guild Hall	1897-8	Charles Street
St. Andrews' Church	1909-10	Barnt Green
St. Basil's Church	1910-11	Small Heath

4. 결론

이 논문은 영국 건축가 A. 디슨의 초기 작품을 대상으로 영국 예술과 공예운동의 성격을 살펴서 디슨 작품의 특징으로 규정하고자 했다. 윌리엄 모리스와 필립 웹 그리고 윌리엄 레더비 등과 교류했던 디슨은 로마네스크 건축의 형식미를 통하여 빅토리아 시대 말기 자본의 축적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인본주의를 통한 미래사회의 비전을 공유했다.

버밍엄 길드홀 설계를 통해 두각을 드러낸 디슨의 재능은 예술과 공예운동과 사회적 맥락을 같이 한다. 교회 설계의 경우, 설계를 의뢰받은 노동자 거주 지역의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박하고 절제된 형식미를 의도했다. 절제되고 검소한 건축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재현을 통해 추구하는 동시에 실내공간은 제례의식의 본질에 충실하도록 했다.

교회제단의 스크린과 모자이크 성화는 가장 뛰어난 솜씨와 장인으로 제작하도록 했으며, 제작과 시공이 용이했던 붉은 벽돌은 섬세하고 정교하게 외장을 연출했다. 이 논문에서 다룬 디슨의 건축작품은 로마네스크 건축양식의 채용과 더불어 토속적 건축재료와 기술의 적용, 그리고 본질에 충실한 공간연출을 통해 예술과 공예운동의 본질을 잘 드러내주는 작품들로 평가될 수 있다.

References

[1] Won Kim, Completion of Seoul Cathedral. Review of Architecture and Building Science. Vol.40, no.7, pp. 42-48, 1996. (Text in Korean)

[2] A. B. Hwangbo, The Path to Korean Modernity. The Architectural Review, No.1448, pp.60-62, 2018.

[3] A. Foster, Pevsner's Architectural Guides: Birmingham.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7.

[4] Birmingham Mail, Obituary: Death of A. S. Dixon. (10 January 1929)

[5]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Document on Dixon's membership. London: RIBA Library Archive.

[6] A. Crawford, By Hammer and Hand: The Arts and Crafts Movement in Birmingham. Birmingham Museum and Art Gallery, 1984.

[7] R. Granelli, All the World and Time Enough. in A. Crawford, op. cit, pp.41-60, 1984.

[8] The Architectural Review, The Birmingham Guild of Handicraft works. London, p.274, 1899.

황보봉(A. B. Hwangbo)

[정회원]



- 1995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건축공학석사)
- 2000년 5월 : 영국 셰필드대학교 건축학과 (건축학박사)
- 2001년 9월 ~ 2003년 6월 : 일본 동경대학 특별연구원
- 2003년 7월 ~ 현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관심분야>

건축계획 및 이론, 건축역사